

[소식]'전유성의 고정관념 바꾸기' 울산시민 강연

등록 2015.03.31 09:48:08 | 수정 2016.12.28 14:47:12

【울산=뉴스시스】조현철 기자 = 개그맨 전유성씨가 4월 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고정관념 바꾸기'란 주제로 시민아카데미(제3강)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강좌에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발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개그맨 특유의 입담으로 수강생들에게 유쾌하게 전한다.

'개그맨'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그는 심야극장, 심야볼링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 현실화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코미디철가방극장을 운영 중이다.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진행(2003~2005)했다. MBC 연기대상 라디오 우수상(2004),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농림수산물부 장관상(2012)을 받았다.

저서로는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2007),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2008)가 있다.

4월 16일 오후 2시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 이영석씨(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를 초청한다.

jhc@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